2025. 12. 22

금융 Weekly Insight

FED 이벤트는 끝났지만 – 국내 금리 및 환율 불확실성 완화가 관건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5년 12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최근 금융업에 있어서의 화두는 금리와 환율. 금리의 경우, 국고채 등 시중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최근에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상승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시 코픽스 금리 상승을 통해 대출금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환율 또한 화두인데, 특히 은행들은 환율 상승이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를 야기, 자본비율 하락을 야기하기 때문.
- 이제 연말까지는 열흘 남짓 남은 상황. 즉,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이러한 이례적인 매크로 지표들의 안정화 여부가 연말 금융사들의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 필요.
- 여전히 금융주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견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버블 등 Valuation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내년 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가능한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기 위한 액션을 취할 금융사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또한, 일부 금융사의 경우, 내년 경기 회복에 따른 펀더멘털 관점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주는 -0.2% w-w 하락, KOSPI -3.5% w-w 하락 대비 아웃퍼폼:** 여전히 AI관련 시장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상승세 시현. 은행들의 26년 실적 개선 및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기대와 여전히 매력적인 Valuation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 한편, 단기적으로 관건은 금리 및 환율의 연말 하향안정화 여부가 될 전망.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나타난 급격한 환율 상승이 은행들의 RWA 증가를 야기, CET-1 비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의 하향 안정화가 단기적으로 실적은 물론, 레버리지 및 주주환원 강화 여력 관점에서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 필요.
- **증권 – 증권주는 -0.4% 하락하며, KOSPI를 아웃퍼폼:** 주 초반 반도체 중심 증시 약세 및 채권 운용 부문 손실 우려 부각 등에 따라 주가 부진하였으나, 이후 미래에셋증권(w-w +2.3%) 스페이스X 투자 지분 가치 부각 및 IMA/발행어음 등 신규 기업금융 상품 출시 등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 성공. 4분기 실적의 경우, 채권 운용 손실 관련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우수한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 **보험 – 보험주는 +0.3% 상승하여, KOSPI를 아웃퍼폼:** 반도체 주 중심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종의 경우 방어주 성격 부각됨에 따라 수익률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 보험업종의 경우, 보험금 청구 증가에 따른 보험손익 훼손 우려로 부진한 투자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내년 초 논의될 실손/자동차 보험 등의 요율 조정 여부와 폭이 될 것으로 전망. 단기적 관점에서는 올해 배당이 확실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 등에 집중이 필요.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14) 마이너스 통장 잔액 3년만에 최대치** -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0.8조원 (12월 11일 기준)으로 11월 말 대비 열흘 만에 0.7조원 증가하였으며, 잔액은 22년 말 42.1조원 이후 최대치. - 이에 대한 원인은 주담대 한도 축소에 따른 풍선효과로 거론. 이와 더불어 주식 등 투자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활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마이너스 통장의 양면:**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 대출로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부여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리스크 또한 일정 수준 관리 가능한만큼,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 그러나, 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한도만 부여할 뿐 실제 해당 한도를 사용하는 시점은 예측 불가능. 즉, 최근 연말까지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 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큰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 **한도와 금리:** 보다 중기적 관점에서 가계대출 성장 규제 강화 속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credit line, 즉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충분한 한도 확보가 보다 우선시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연간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 달성 부담과 풍부한 수요를 고려 필요. 즉, 은행이 보다 지속적으로 가격 협상력을 지닐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12/15) 주담대 금리 고정형 이어 변동형도 4% 넘어 -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4%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 4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금리수준은 3.91~5.40%로 11월 중순 3.82~5.33%대비 상단과 하단 모두 상승. -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벤치마크인 코픽스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변동형 금리 상승에 기여. 더 나아가 15일 발표될 코픽스 상승 시, 추가적인 주담대 금리 상승도 불가피. - 참고로, 금리 밴드의 하단은 다양한 부수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 기준으로,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적용받게 되는 금리는 이보다 높을 전망.	**시장금리 상승이 주담대 금리 상승을 견인:** 고정형은 물론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있어 최근 불거지는 원인은 시중금리 상승. 실제로 장기채 (예: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은 물론, 4Q 들어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코픽스 금리 상승,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다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가정은 시기상조 판단:** 다만,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다 판단. 계절적으로 연말 은행들의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및 재예치 과정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순증액 한도 소진 영향도 맞물린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즉, 26년 초 정기예금 금리 부담의 완화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신규 한도 부여 시 신규 주담대 금리는 재차 안정화 가능.
	(12/15)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가속 - 여당, 내년 3월 국회 통과 목표 - 여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종안 통과 시점을 내년 3월로 설정하고 본격 입법에 나설 예정. - 올해 연말은 금융당국과 논의를 통해 쟁점 사안을 정리, 간극을 좁히고, 법안은 1월에 발의해야 1월 말에서 2월 중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이 가능. 또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국회 통과 가능 스케쥴은 3월로 추산 가능. - 다만, 3월이 지날 경우, 지방선거 때문에 심사할 여지가 없는 만큼, 여당은 그 이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도.	**다소 더딘 법제화 - 그러나, 그만큼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들도 다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이의 발행 주체만 하더라도 속도, 혁신과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해외 송금 등 다양한 부문의 긍정적/부정적 기능과 현행법과의 상충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
	(12/16) 대출금리 상승 압력 계속 - 1Q26 만기도래 은행 및 여전채 증가 - 1Q26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와 여전채 규모가 총 72.4조원으로 예년대비 17.9% 증가. 은행채는 52.8조원, 여전채는 19.6조원으로 과거 3개년 1Q평균대비 각각 24.5%, 2.5% 많은 수준. 특히, 은행채 만기 도래 물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은행채 만기 도래 물량은 2Q 59.8조원, 3Q 46.1조원, 4Q 51.8조원 순임. - 만기 도래 물량 증가 및 이에 대한 차환 수요는 시중금리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고, 이에 은행 대출금리가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 요인.	**증가율보다 금액 측면에서 우려 제한적 판단:** 과거 3개년대비 증가율은 크게 나타나지만, 결국 총액은 10조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 즉, 은행들의 입장에서 해당 규모는 은행채와 다른 조달 수단의 믹스 등을 통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 **26년 시장 유동성 공급 증가에도 초점 필요:** 반면, 26년에는 시장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필요.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은 물론,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그리고 IMA, 발행어음 등 신규 라이선스를 받은 증권사들의 레버리지 확대 등 다양한 유동성공급 증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이와 같은 시중 유동성 공급에 따라 위의 자금 조달 수요처 증가 부담은 일부 완화되거나,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경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부 고려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16) 페이팔, 미국에서 은행 설립 추진** - 미국의 페이팔은 유타주 금융기관국과 FDIC에 산업대부회사 형식의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 은행명은 페이팔 은행 (PayPal Bank)임. - 페이팔은 은행업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동사는 13년 이후 전 세계 기업 42만 곳 이상에 3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해왔음. 하지만 은행 설립이 승인되면 다른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 대출이 가능. - 한편, 일반 수신 고객에게도 이자 지급 저축 계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	**이미 Block (구 Square)이 실행:** 사실 핀테크 업체의 은행 라이선스 확보 및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대출 제공은 최초가 아님. 이전에도 미국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의 강자로 부상한 Square가 유타주 은행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직접 대출 사업을 시도. **금융정보와 금융 서비스의 콜라보 기대 – 다만, 실제 사업성 확인 및 규모의 경제 확보가 관건:** 결제업체가 보유한 금융 정보와 고객 기반, 그리고 이들이 금융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모두 담당함에 따라 관련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과거에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과도기 구간이라 판단. 즉, 향후 실제 사업성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실적 개선 기여 확인이 관건이 될 전망.
증권	**(12/14) 증권사 IMA 출시 임박, 여수신 경쟁 불붙나** -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IMA 및 발행어음 사업자로 잇따라 인가받아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과 증권사 사이에 수신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 - 한투, 미래증권이 연내 출시할 예정인 IMA는 특히 원금 보장을 중점으로 고객에게 어필할 예정. - 신평사는 중장기적으로 증권사가 수신은 물론 여신 시장에서도 역할 및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	**중장기 증권사 역할 확대 기대. 다만 단기 이익 기여 여부는 확인 필요:** 신규 기업금융 사업 인가를 통해 대형 증권사들의 수신, 여신 경쟁력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 다만,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는 단기 측면보다는 중장기 점진적 상승을 전망하는데, 이는 1) IMA의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초기 수수료 수익 중심의 손익 기여가 예상되며, 2) 여신(자산운용) 또한 초기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
	(12/18) 금감원장 "증권사 해외주식 수수료 장사에 투자자 뒷전, 문제 발견 땐 영업정지" 초강수 -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되고 있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중개 경쟁에 제동을 걸고 있음. - 특히,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 무분별한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 부당행위 발견 시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 엄정 조치"를 언급. -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당분간 해외주식 관련 신규 마케팅과 이벤트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	**가격 경쟁 축소에 따른 수수료율 마진 하락 속도 완화 가능성:** 성장 산업으로 여겨지던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영역에서 증권사들의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어 왔음. 이에 따라 2020년대 초반 평균 20bp 수준이던 수수료율은 25년 기준 12bp 수준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던 상황. 다만, 금번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수수료율 경쟁이 일부 제한되면서, 증권사 별 수수료율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진정될 전망.
보험	**(12/16) 의사협회, 도수치료 건보적용 반발** - 정부가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신경성형술 등 과잉 우려가 큰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한 행위' 라며 강력 반발. - 관리급여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식. - 의협은 이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등이 위반된 것으로 보고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	**관리급여안 현실화 시 보험사 간접적 수혜 기대:** 주요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지정에도, 환자 본인부담율은 95%에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손보험 등 직접적인 보험금 부담은 여전히 존재. 다만, 현재 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일부 과잉진료 우려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관리급여 항목 지정을 통한 정부 통제로 간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5-12-22 (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공개	미국 9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 영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영국 3분기 경상수지
2025-12-23 (화)	국무회의 개최	미국 3분기 GDP 최초 집계치 미국 11월 신규주택매매 미국 10월, 11월 산업생산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미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5년 만기 국채 입찰
2025-12-24 (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0월 인구동향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증시 조기폐장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7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증시 휴장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일본 10월 경기동향지수 (수정치)
2025-12-25 (목)	국내 증시 휴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대만 증시 휴장
2025-12-26 (금)	1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영국, 독일, 프랑스 증시 휴장 일본 12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11월 실업률 일본 11월 산업생산 (예비치) 일본 11월 소매판매 (예비치)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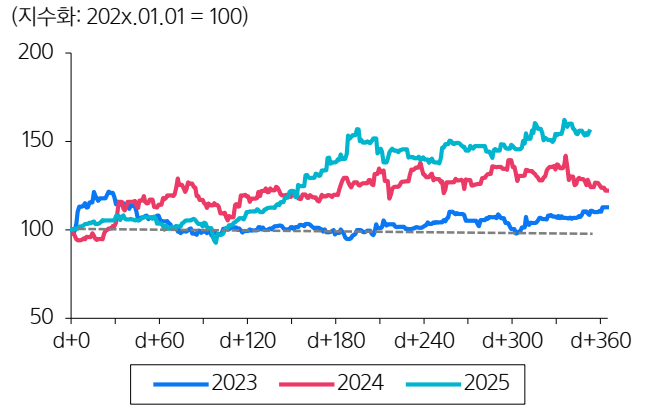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5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3,222.9	4,020.6						(3.5%)	2.3%	65.1%	67.6%
	KRX은행	171.0	1,297.7						(0.2%)	2.4%	50.9%	55.6%
	KRX증권	52.7	1,545.8						(0.4%)	2.9%	99.7%	109.7%
	KRX보험	78.1	2,627.3						0.3%	4.2%	34.5%	38.4%
	결제 지수**	1.330	n/a						(2.6%)	(1.9%)	38.5%	48.5%
은행	KB금융	47.8	125,200	52.6	0.8	10.7	7.9	17.9	(0.7%)	2.5%	44.1%	51.0%
	신한지주	37.5	77,300	45.3	0.7	10.2	7.3	20.9	(0.5%)	0.8%	58.2%	62.2%
	하나금융지주	25.7	92,400	44.1	0.7	10.4	6.4	11.2	(0.3%)	(0.2%)	58.2%	62.7%
	우리금융지주	20.4	27,750	34.7	0.6	10.5	6.3	5.2	0.4%	6.3%	79.1%	80.5%
	기업은행	16.7	20,950	32.0	0.6	9.1	6.5	4.6	(0.9%)	3.2%	44.9%	46.2%
	BNK금융지주	5.0	15,970	37.8	0.5	8.4	5.7	18.8	4.7%	7.5%	50.8%	54.4%
	JB금융지주	4.7	24,800	35.7	0.4	8.9	5.1	119.7	(2.4%)	2.3%	50.2%	52.3%
	iM금융지주	2.4	14,730	44.7	0.9	13.2	7.0	4.6	3.6%	4.5%	75.1%	80.1%
	카카오뱅크	10.4	21,750	45.0	1.5	7.0	22.4	5.8	(0.7%)	1.9%	(3.8%)	3.3%
증권	미래에셋증권	12.9	22,700	45.4	1.1	9.9	10.7	34.9	2.3%	2.5%	168.6%	182.7%
	NH투자증권	7.5	21,000	47.8	0.9	11.0	8.5	24.9	(1.4%)	0.2%	51.4%	50.5%
	한국금융지주	9.1	162,700	20.7	0.9	19.3	5.1	90.1	(2.8%)	3.5%	118.7%	128.2%
	키움증권	7.9	296,500	28.1	1.2	18.4	7.4	35.1	3.5%	9.6%	141.1%	155.2%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2	109,600	50.3	1.9	24.7	7.6	18.7	(1.3%)	0.8%	9.2%	5.4%
	삼성화재	22.5	488,000	42.4	1.2	12.5	10.7	5.5	(0.3%)	4.1%	32.2%	36.1%
	삼성생명	31.0	155,000	44.6	0.6	6.2	12.6	8.8	(0.3%)	4.6%	57.4%	63.5%
	DB손해보험	8.8	123,700	29.0	1.1	17.4	6.0	-18.2	0.7%	2.8%	18.8%	20.3%
	한화생명	2.8	3,210	0.0	0.2	4.5	5.6	-30.8	3.4%	6.6%	29.2%	30.5%
	현대해상	2.7	30,300	0.0	0.5	16.1	3.4	-22.9	2.9%	7.6%	14.3%	22.7%
결제	카카오페이	6.2	45,900	n/a	n/a	3.7	102.5	흑전	(3.2%)	(8.0%)	71.6%	74.9%
	NHN KCP	0.6	14,890	n/a	n/a	17.3	12.7	9.1	(4.9%)	(5.2%)	85.0%	109.7%
	KG이니시스	0.3	10,730	n/a	n/a	8.9	4.3	68.0	(0.6%)	3.9%	14.0%	21.4%
	KG모빌리언스	0.2	4,900	n/a	n/a	11.2	4.9	18.0	(0.2%)	5.3%	0.4%	3.3%
	나이스정보통신	0.3	25,000	n/a	n/a	7.4	7.2	174.3	(1.2%)	(5.3%)	35.4%	39.4%

참고: 12/22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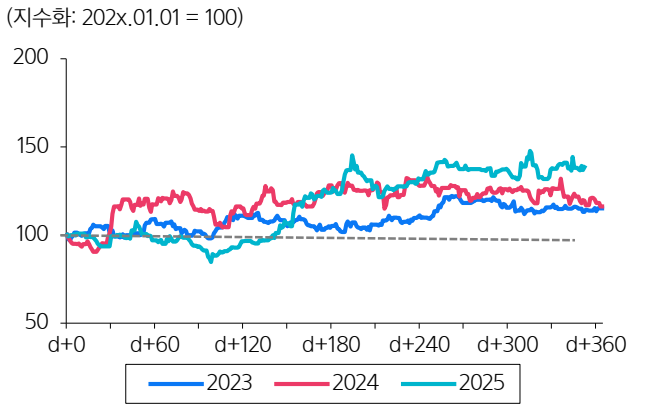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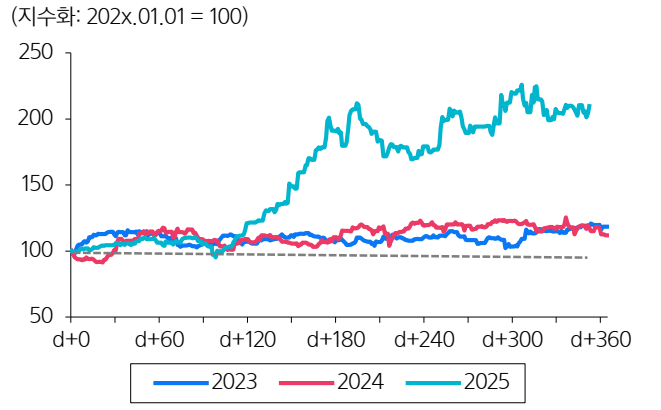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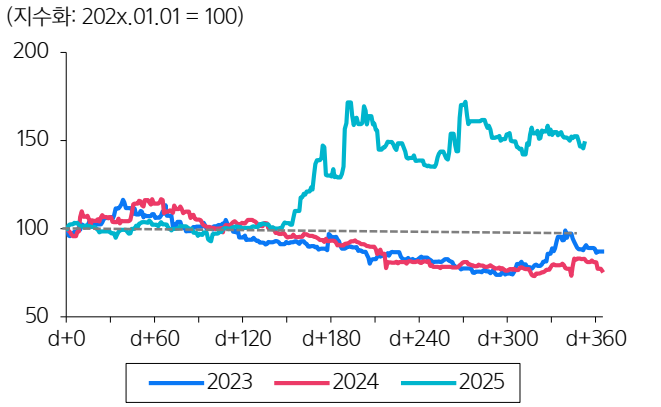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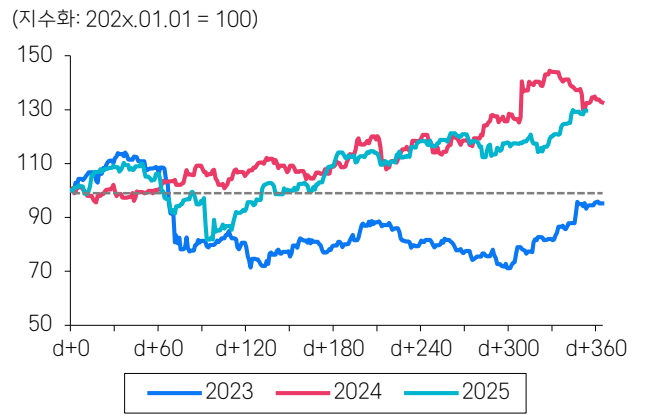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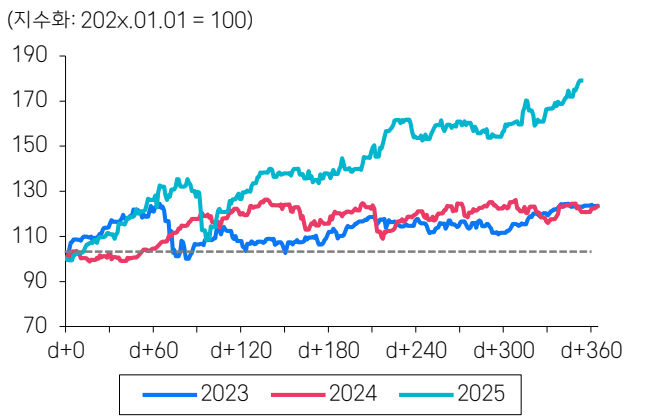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5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63.5	83.2	2.5	16.8	15.6	2.9	0.7	6.4	33.5	32.3
		Bank of America	403.6	28.1*	1.4	10.5	14.5	17.7	2.4	7.2	25.1	25.8
		Citigroup	205.5	123.7	1.0	7.6	15.1	27.6	5.5	16.4	66.0	63.2
		Wells Fargo	292.0	116.4	1.8	12.3	14.7	18.1	3.5	11.9	32.2	32.4
		PNC Financial	82.4	59.8	1.5	12.2	13.2	15.5	6.2	12.4	9.0	9.0
	유럽	Banco Santander	173.8	65.7	1.5	13.2	10.9	13.7	5.4	13.2	128.9	123.3
		Unicredit	128.6	87.3	1.7	16.6	10.1	11.7	8.3	12.1	87.1	82.9
		BBVA	133.5	54.3	1.9	17.8	10.8	4.9	4.8	11.7	112.6	109.2
		ING Group	84.7	109.5	1.4	12.1	12.2	(1.6)	5.7	11.2	64.3	59.8
		Lloyds	76.8	94.7	1.4	11.0	15.7	0.0	1.7	11.8	79.7	77.8
		Barclays	87.1	63.3	1.0	9.7	12.7	0.0	8.0	19.6	80.2	74.9
	일본	Mitsubishi UFJ FG	187.7	62.2	1.3	10.5	13.1	18.7	(1.5)	4.5	40.6	35.0
		Sumitomo Mitsui FG	124.1	56.7	1.3	10.1	12.8	31.0	2.4	13.9	38.8	34.6
		Mizuho FG	91.1	63.3	1.3	10.5	12.8	28.8	1.8	11.6	53.0	48.8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0.0	30.1*	0.6	9.3	6.1	2.1	(3.3)	(4.4)	26.4	17.5
		China Construction Bank	259.0	29.9*	0.6	10.0	5.8	(1.8)	(6.1)	(7.4)	20.4	15.6
		Agricultural Bank of China	364.0	31.1*	0.7	10.1	7.1	2.7	(3.2)	(4.7)	31.3	23.9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71.7	N/A	1.5	9.0	19.5	(38.4)	(1.3)	(1.3)	9.2	9.5
		AIG	46.4	204.2	1.1	9.2	13.4	흑전	11.7	13.3	18.4	18.2
		Travelers Insurance	65.3	65.7	2.0	19.2	11.6	17.5	4.3	1.0	21.7	21.6
	유럽	Allianz	173.6	78.1	2.4	18.3	13.7	13.2	6.2	7.3	32.2	31.6
		AXA	102.5	61.8*	1.8	17.4	9.5	23.6	6.9	8.0	22.9	20.0
		Generalli	64.9	56.4*	1.7	13.7	12.9	14.4	5.9	8.2	32.0	31.0
	일본	Tokio Marine	72.6	40.9*	2.2	20.1	11.4	(4.5)	7.0	6.7	7.1	3.2
		Daiichi Life Insurance	31.1	46*	1.3	11.7	11.8	(3.6)	8.4	7.0	27.5	25.0
	중국	Ping An Insurance	166.7	32.6*	1.2	15.1	7.7	18.5	8.3	15.0	44.0	42.1
		China Life Insurance	165.1	14*	1.3	28.5	5.0	51.2	2.1	11.3	98.3	96.2
		PICC P&C Insurance	47.6	33.7*	1.3	16.4	8.2	41.2	(4.4)	(6.2)	38.8	35.9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78.3	106.8	2.5	14.3	18.3	20.4	4.6	15.4	57.8	56.0
		Morgan Stanley	281.3	66.7	2.8	16.1	17.9	24.5	0.3	11.9	43.4	40.8
		Charles Schwab	180.6	91.6	3.9	20.5	21.3	55.4	5.3	9.2	33.0	33.5
		Robinhood	109.3	31.0	12.2	21.4	59.6	30.4	(8.0)	13.1	216.6	225.7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59.4	78.1	8.4	34.5	24.3	10.6	1.7	6.7	26.1	26.9
결제	미국	VISA	683.4	21.6*	17.1	63.4	27.5	24.4	5.4	6.5	9.9	10.5
		MasterCard	513.9	18.6*	63.4	203.6	35.1	17.5	4.9	5.9	8.4	8.7
		PayPal	56.0	2.6*	2.9	25.5	11.6	28.7	(4.0)	(1.3)	(31.4)	(29.9)
	유럽	Adyen	50.9	0*	8.2	22.5	40.4	15.1	2.1	5.9	(4.4)	(4.1)
핀테크	미국	Block	39.7	0*	1.7	6.7	26.5	(45.8)	6.9	5.5	(27.1)	(23.1)
		Upstart	4.6	0*	6.3	14.4	97.8	N/A	1.8	28.3	(30.4)	(22.7)
		Affirm	25.2	0*	6.4	10.5	75.5	572.7	12.1	18.4	16.1	25.2
	중국	LuFax	2.4	N/A	N/A	(2.8)	N/A	흑전	0.0	0.0	10.8	10.9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12/19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12월 19일 현재 삼성화재, 삼성생명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12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2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